

‘-답-’, ‘-롭-’, ‘-스럽-’의 결합제약과 의미 기능

- 트위터(Twitter) 언어를 중심으로 -

최화니(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답-’, ‘-롭-’, ‘-스럽-’의 의미 기능 |
| 2. ‘-답-’, ‘-롭-’, ‘-스럽-’의 결합제약 | 4. 결론 |

1. 서론

본고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¹⁾의 일종인 트위터(Twitter) 언어를 바탕으로 형용사 파생접미사 ‘-답-’, ‘-롭-’, ‘-스럽-’의 새로운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선행 연구와의 결합제약과 의미 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답-’, ‘-롭-’, ‘-스럽-’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2090)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 하나로 1인 미디어와 1인 커뮤니티, 정보공유를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을 표현하고 인맥을 구축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김경미, 2016: 9).

한다.

‘-답-’, ‘-롭-’, ‘-스럽-’은 현대국어의 대표적인 형용사 파생접미사로서 그 의미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자주 비교되어 연구되었다. 송철의(1978: 1992), 우효(1980), 이태영(1980), 심재기(1982), 김창섭(1984), 민현식(1984), 김진희(1985), 장영희(1986), 윤동원(1987), 최호철(1994) 등에서 ‘-답-’, ‘-롭-’, ‘-스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SNS 공간을 중심으로 이들 접미사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다양한 신조어를 파생하고 있다.²⁾ 이들은 선행 연구에서 기술된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편으로 일반적인 예측과 전혀 다른 용법을 취하기도 한다. 현대국어의 화자들이 SNS라는 창조적이고 다면적인 소통 공간을 통해 ‘-답-’, ‘-롭-’, ‘-스럽-’을 새로이 인식,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담화 상황하에 나타나는 신조어를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김정남(2005)에서는 인터넷 자료에 나타나는 ‘부시스럽다’, ‘미국스럽다’와 같은 신조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고 민여은(2009)에서도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답-’, ‘-롭-’, ‘-스럽-’의 현대적 기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2) 이래호(2009: 51)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신조어가 포함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전에 없던 개념이나 사물을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 생긴 말

나. 개념이나 사물은 존재하는데 명칭이 없는 경우에 어휘 체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생긴 말

다. 이미 있던 개념이나 사물일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던 말들의 표현력이 감소했을 때 그것을 보강하거나 신선한 새 맛을 가진 말로 바꾸기 위한 대중적 욕구에 의해서 생긴 말

라.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생긴 말

그러나 본고에서 설정하는 신조어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김미영(2010: 10-11)에 따르면 신조어의 범위에는 단어의 형태가 변한 약어, 방송 매체 속의 유행어, 인터넷에 새로 나타난 비표준어, 임시어, 은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신조어는 얼마든지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사전 등재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고 널리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사회·심리 언어학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넓은 범위를 모두 포함해야 비로소 전면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미영(2010)의 견해에 따라 신조어의 확장된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외의 시도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SNS 매체 중에서 활발하게 신조어를 생성하고 있는 트위터의 언어를 분석하여 ‘-답’, ‘-롭’, ‘-스럽’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트위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자유로운 언어 사용 양상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 기준 140자의 제한된 글자 수로 간결하고 빠르게 표현한다는 점이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마치 문자를 보내듯이 짧은 길이의 메시지를 즉흥적으로 생산하므로 비교적 정제되지 않은 언어 표현을 살피기에 유용하다.

트위터의 익명성 또한 표현의 자유로움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Facebook)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자의 실명과 프로필이 고스란히 노출되므로 언어 사용에서 자체 검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트위터 사용자들은 익명성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언어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만큼 신조어의 사용도 보다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트위터는 SNS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합하여도 가장 많은 정보가 업로드 된다는 특징이 있다. 장순영(2019)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언론사 뉴스사이트와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영상 제외),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지식인 및 주요 기업·단체와 정부·공공기관 사이트 등 12개 주요 채널 중에서 정보량이 가장 많은 곳은 트위터로, 그 정보량은 전체의 5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업로드 된 정보만으로도 방대한 양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작성된 트윗(Tweet)³⁾에서 ‘-답’, ‘-롭’, ‘-스럽’의 파생 어휘를 검색하였다. 그리고 이들 접미사의 결합제약 변화를 중심으로 사용 양상을 파악한 뒤, ‘-답’, ‘-롭’,

3) 트윗(Tweet)이란 특정 사용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박수영·허용호·김용혁, 2010: 25).

‘-스럽-’의 의미 기능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답-’, ‘-롭-’, ‘-스럽-’의 결합 제약

‘-답-’, ‘-롭-’, ‘-스럽-’은 선행 어기를 취하는 데에서 서로 다른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트위터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상당히 약화되어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실제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답-’, ‘-롭-’, ‘-스럽-’의 결합 제약 변화 양상을 제시한다.

2.1. ‘-답-’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답-’은 ‘-답1-’과 ‘-답2-’로 구분할 수 있다.⁴⁾

- (1) ㄱ. ‘-답1-’ : $[[X]_{N,R} + [\text{답1}]_{\text{Sur}}]_{\text{Adj}}$
정답다, 실답다, 참답다, 아름답다 등.
ㄴ. ‘-답2-’ : $[[X]_{N(P)} + [\text{답2}]_{\text{Sur}}]_{\text{Adj(P)}}$
여자답다, 어른답다, 군인답다, 신사답다 등.

‘-답1-’과 ‘-답2-’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기와 구성이다. 김정남(2005: 140-142)에 따르면⁵⁾ ‘-답1-’은 ‘정, 실, 참, 아름답’처럼 의미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명사 또는 불완전 어근을 어기로 취하는 반면에 ‘-답2-’는 ‘여자, 어른, 군인, 신사’처럼 의미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명사를 어기로 취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답1-’은 명사와 결합하여 그 명사를 어기로 하는 단어 구성을 이루는 반면에

4) 2장에 제시하는 ‘-답-’, ‘-롭-’, ‘-스럽-’의 구성 및 결합 제약은 주로 이태영(1980), 김창섭(1984), 송철의(1992), 변민주(1995), 김정남(2005)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5) 김정남(2005)의 견해는 김창섭(1984)를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다만 김창섭(1984)에서는 명사구와 결합하는 것을 ‘-답2-’가 아닌 ‘-답1-’로 설정하고 있다.

‘-답2-’는 그 명사에 선행하는 수식어를 포함한 구 전체와 통합하는 구성상의 차이를 보인다. 즉, ‘-답2-’는 단어 파생접미사로서가 아니라 어구와 통합하는 일종의 의존 용언의 성격을 지닌 통사적 접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결합제약을 갖는다.

(2) ‘-답-’의 결합제약

가. 음운적 제약

‘-답1-’과 ‘-답2-’ 모두 자음,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할 수 있다.

나. 통사적 제약

ㄱ. ‘-답1-’은 명사와 불완전 어근에 결합할 수 있으나 ‘-답2-’는 명사에만 결합할 수 있다.

ㄴ. ‘-답1-’은 구 단위와 결합할 수 없으나 ‘-답2-’는 결합할 수 있다.

다. 의미적 제약

ㄱ. ‘-답2-’는 선행 어기가 [+human]의 의미자질을 가질 때, [+human]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진 어기와 주로 결합하여 긍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ㄴ. ‘-답2-’는 선행 어기가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가질 때, 가치 있는 어기와 주로 결합하여 긍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ㄷ. ‘-답2-’는 ‘X는 Y답다’와 같은 구문에서 ‘ $X \in Y$ ’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나 ‘-답1-’은 그렇지 않다.

‘-답1-’과 ‘-답2-’는 음운적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통사·의미적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제약을 보인다. 또한 ‘-답1-’은 결합 가능한 어기의 범주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대국어에서는 더 이상 생산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⁶⁾

6) 김창섭(1984: 149-15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정답다, 꽃답다, 풀답다, 참답다, 실답다, 아름답다’의 여섯 예에 한정되며, 이러한 ‘-답-’이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남(2005: 139-140)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

트위터상에서도 ‘-답1-’의 새로운 파생어는 찾을 수 없었지만, ‘-답2-’는 매우 활발하게 쓰이면서 통사·의미적 제약에서 변화를 보였다. 먼저 (2다)에서 제시하였듯이 ‘-답2-’의 선행 어기는 [+human],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가질 때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는 어기에 주로 결합하여 긍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의미적 제약이 있었다.⁷⁾ 그런데 트위터상에서는 ‘-답2-’가 [+human]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거나 [+concrete] 중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요소와도 자유롭게 결합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ㄱ. 전형적인 사기꾼답네. <2018.10.30. @sma***>⁸⁾
 ㄴ. 약치냐? 기레기들 답다. <2018.10.24. @Val***>
 ㄷ. 역시 존나 병신 답네 <2018.10.19. @Eun***>

된 ‘-답-’ 파생어가 ‘꽃답다, 법답다, 시름답다, 실답다, 아름답다, 예답다, 예모답다, 정답다, 참답다’의 아홉 예에 지나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답1-’이 매우 이른 시기에 생산성을 잃은 접미사라고 하였다.

- 7) 이러한 의미 제약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이태영(1980: 89-90)에서는 ‘-답-’이 붙어 파생된 형용사는 ‘어떤 기준점보다 이상에 있다’는 특정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바보답다’와 같은 표현은 매우 어색하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김창섭(1984: 146)은 ‘바보답다’와 같은 형식도 문맥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심재기(1982: 384)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바보답다’보다는 ‘어른답다’와 같은 형식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문맥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러한 차이는 ‘-답-’ 자체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이유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철의(1992: 214)는 부정적 가치를 갖는 어기에 ‘-답-’이 결합되는 것이 여전히 자연스럽게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답-’의 기본적인 의미가 긍정적 가치 평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정남(2005: 144)에서도 ‘-답-’이 기준 이하의 명사와도 결합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예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그것은 ‘-답-’이 긍정적 인 낱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송철의(1992)와 김정남(2005)의 견해에 따라 ‘-답-’을 ‘긍정적 가치를 갖는 어기와 주로 결합하여 긍정적 의미를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요소’로 보고 의미적 제약을 정리하였다.

- 8) 트윗의 내용은 비문이나 띄어쓰기 오류 등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다. 다만 트윗 내의 줄 바꿈은 ‘/’로 표시하고 워드 프로세서로 옮기기 어려운 특수문자는 삭제하였다. 또한 @ 이하의 영문은 각 트윗의 출처를 부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 (4) ㄱ. 역시 친일신문답다 <2018.10.09. @mSI***>
- ㄴ. 설명 대박 빈약해.. 우리나라 드라마답다.... <2018.10.24. @Plu***>
- ㄷ. 역시 창작자 존중 안해주는 나라답다 <2018.10.30. @b_o***>

예문(3)에는 ‘-답2-’의 선행요소로 ‘전형적인 사기꾼’, ‘기레기’,⁹⁾ ‘병신’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human]으로서 기준점 이하의 속성을 띠며 부정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또한 예문(4)에서 ‘-답2-’의 선행요소인 ‘친일신문’, ‘우리나라 드라마’, ‘창작자 존중 안 해주는 나라’는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가지면서 맥락상 가치 없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트위터상에서는 이처럼 ‘-답2-’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는 사례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즉, ‘-답2-’의 선행요소가 취하는 ‘자격/가치’의 범위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차원까지 확장되면서, ‘긍정적 의미를 주로 드러낸다’는 의미적 제약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의 약화로 인해 ‘-답2-’의 생산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의미 제약의 변화와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통사적 지위의 변화이다. ‘-답2-’는 본래 선행 어기를 필요로 하는 파생접미사이지만 트위터상에서는 어기를 취하지 않는 ‘-답2-’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 ㄱ. 내 실친 메이플스토리 고인물인데 / 수능 끝나고 재수하더라도
만렙 찍고 공부할 거래 / 악ㅋㅋㅋㅋ 답다 다워 <2018.10.21. @vzJ***>
- ㄴ. 리 뜨개질 작품 철거 요구도 본인이 못하고 학부모가 요구한다는
게 정말 답네 다워 ㅋㅋ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ㅋㅋㅋㅋ
<2018.10.29. @you***>
- ㄷ. 이렇게보니 정말 sns 중독자같군. 답다고해야하나?? <2018.10.26. @nom***>

9)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기사를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트위터 언어에서는 예문(5)와 같이 어기를 취하지 않는 ‘-답2-’가 자주 보인다. 이는 대체로 (5ㄱ)과 (5ㄴ)처럼 반복 구성으로 나타나며, (5ㄷ)처럼 홀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의 ‘-답2-’는 ‘그럴 만하다’, ‘그럴 법하다’에 가까운 의미를 표현한다. ‘-답2-’의 생략된 어기는 주어 그 자체이거나, 또는 주어의 본질적인 특징과 맞닿아 있으면서 맥락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답2-’의 부정형인 ‘답지 않다’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6) ㄱ. 왜 답지 않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그래? <2018.10.30. @Pd****>
 ㄴ. 답지 않은 존댓말은 여기서 끝. <2018.10.19. @u_r****>
 ㄷ. 제가 답잖게 괜한 치기를 부렸습니다. <2018.10.29. @Non****>

예문(6ㄱ), (6ㄴ)의 ‘답지 않다’는 (6ㄷ)처럼 준말 표현 ‘답잖다’로 쓰이기도 한다. 이는 ‘같잖다’가 형용사로 자리 잡은 것처럼 일종의 어휘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 또한 ‘-답2-’의 생산성의 확대를 보여준다.

2.2. ‘-롭-’

‘-롭-’은 트위터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접미사이다. 먼저 기존에 논의된 ‘-롭-’의 구성과 결합제약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7) ‘-롭-’ : [[X]_{N,R} + [롭]_{Suf}]_{Adj}
 가소롭다, 의롭다, 자비롭다, 평화롭다 등.

- (8) ‘-롭-’의 결합 제약
 가. 음운적 제약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할 수 있다.

나. 통사적 제약

구 단위와 결합할 수 없다.

다. 의미적 제약

ㄱ. [+human],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가진 어기를 취할 수 없다(‘보배롭다’는 예외).

ㄴ. [+abstract]의 의미자질을 가진 어기와 결합되나 그중에서도 [+action]의 성격이 있는 것과는 결합할 수 없다.

‘-롭’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되는 음운적 제약을 가진다는 점에서 ‘-답’, ‘-스럽’과 구별되며, 의미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롭’은 ‘-답1’과 마찬가지로 현대국어에서 거의 생산력을 잃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트위터 언어에서 ‘-롭’은 통사·의미적 제약의 약화와 더불어 매우 높은 생산력을 획득하고 있다.¹⁰⁾ ‘-롭’은 본래 [+human],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가진 어기에 붙을 수 없다는 의미적 제약이 있으나,¹¹⁾ 트위터 언어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어휘를 파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0) ‘-롭’의 음운적 제약은 트위터에서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도 발견되었다.

ㄱ. 존잘롭다 <2018.10.02. @1se***>

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고 허묵로운 하루 되시길!! <2018.10.31. @cal***>

‘존잘롭다’의 경우 트위터상에서 자주 보이는 신조어 ‘존예롭다/존귀롭다’와 비슷한 맥락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보인다. 또한 ‘허묵’은 게임 캐릭터의 이름으로서 변형하기 어려운 고유명사이므로 그대로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롭’의 어기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롭’의 음운적 제약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예외적인 사례로 처리하고자 한다.

11) 이는 이태영(1980: 93)을 인용한 것이다. 송철의(1992: 207)에서도 ‘-롭’의 어기 중에 구체명사가 등장하는 것은 ‘보배’ 정도가 유일하며, ‘-롭’에는 구체명사를 어기로 취하지 못하는 어떤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 (9) ㄱ. 저희 동네 중국집인데 진짜 혜자롭네요. <2018.10.29. @YAK***>
 ㄴ. 아니 무슨 아침에 눈뜨면 떡밥이 나와.. 배우덕질이 원래 이렇게 떡밥이 혜자롭나 <2018.10.03. @bib***>
 ㄷ. 성님이야말로 고급진 티케팅스킬과 혜자로운 나눔미를갖추신 분...조는 이구역의 티켓팅 똥손... <2018.10.31. @vuv***>

예문(9)의 ‘혜자롭다’는 배우 ‘(김)혜자’의 이름에 ‘-롭-’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신조어이다.¹²⁾ 이는 (9ㄱ)처럼 음식의 질과 양이 매우 좋다는 의미로 쓰이다가 (9ㄴ), (9ㄷ)처럼 음식 이외의 다른 범위까지 확대되어 ‘풍족하다’, ‘은혜롭다’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게 된 표현으로서, 트위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폭넓게 쓰이는 신조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밖에도 트위터 언어에서는 [+human]의 성격을 가진 어기 뒤에 ‘-롭-’이 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10) ㄱ. 야진짜... 천재롭다... <2018.10.20. @LTE***>
 ㄴ. 독립하면 정말 변태롭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2018.10.09. @711***>
 ㄷ. 점점 낮아져가는 혈중 덕후 농도를 높여줄 장르 찾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거 호모로운 거 없나여... <2018.10.25. @sae***>

예문(10)에서는 ‘-롭-’이 ‘천재’, ‘변태’, ‘호모(homo)’와 결합하고 있다. 이는 ‘-롭-’의 제약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롭-’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롭-’의 신어 조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존의 분석과 대조

12) 정지은(2017)에 따르면 ‘혜자롭다’는 배우 김혜자를 모델로 내세워 만든 편의점 도시락이 가격 대비 상품의 질과 양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어떤 음식이 가격보다 실속 있을 때 소비자의 만족스러움을 표현하게 된 신조어이다. 또한 ‘혜자롭다’와 대조되는 신조어로 ‘창렬하다’가 있는데, 이는 가수 김창렬을 모델로 내세워 판매한 인스턴트 음식이 가격에 비해 질과 양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으면서 등장한 것이다. 이때 ‘혜자롭다’는 ‘혜자스럽다’, ‘혜자하다’로도 나타나는 반면에 ‘창렬하다’는 ‘창렬롭다’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롭-’의 음운적 제약 때문으로 보인다.

적이다.

또한 ‘-롭-’이 [+concrete]의 어기와 결합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

- (11) 가. 오늘 저녁은 고기로웠어 <2018.10.21. @net***>
- 나. 맛있는거 배불리 먹고 돼지롭게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2018.10.05. @sle***>
- 다. 뭔가 굉장히 빅픽처로움 <2018.10.26. @FFX***>

예문(11)에서는 ‘고기’, ‘돼지’, ‘빅 픽처(big picture)’에 ‘-롭-’이 결합하고 있다. 이처럼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갖는 어기에 ‘-롭-’이 붙는 경우는 [+human]에 비하여 많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롭-’의 결합제약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롭-’은 트위터상에서 [+abstract]의 의미자질을 갖는 어기와 결합하여 활발하게 신조어를 생산하고 있다. 트위터에 나타나는 ‘-롭-’ 파생 어휘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 (12) 가. 한자어 + ‘-롭-’
- 가. [용기롭다]: 이럴땐 꼭... 멀쩡한거 같이 굴면서 존나 용기롭게 굴음.... <2018.10.10. @Bae***>
- 나. [패기롭다]: 그러고보면 대체 무슨 패기로 월화수목금 1교시 신청했던 걸까 그때 진짜 패기로웠다. <2018.10.08. @La_***>
- 다. [의기롭다]: 2228년에도 오타쿠짓을 하는 의기로운 나의 트친들 그간 강녕하셨습니다. <2018.10.07. @Nev***>
- 르. [가치롭다]: 깊은 성찰과 깨달음이 느껴지는 가치로운 트윗입니다ㅎㅎ <2018.10.31. @hyp***>
- 미. [신뢰롭다]: 언제나 준짱의 선택은 신뢰롭다.. 앞으로도 준짱만 믿고 갑니다!! <2018.10.16. @kir***>
- 비. [예의롭다]: 별때.. 포인트 / 1.김한빈 여개 탈골춤 과 시그니처 포즈 / 2.김바비 예의로움... 90도 폴더인사. <2018.10.09.

@jer***)

ㅅ. [퇴폐롭다]: 카라의 퇴폐로움을 좋아해주는 트친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018.10.30. @kar***>

ㅇ. [나태롭다]: 이렇게 사람이 나태로울수가있다니 <2018.10.23. @OHM***>

ㅈ. [분노롭다]: 스 게 솔직히 다른건 제막ㅇ 안뛰어서, 센트님과 저분의 앤오관계 같은건 관련인이 아니라서 가타부타 말을 더 못붙이겠는데 자동봇시스템 도용은 분노롭다 ... <2018.10.03. @blu***>

ㅊ. [화사롭다]: 퇴근후의 아침은 참 화사롭네요 <2018.10.11. @Rin***>

ㅋ. [소소롭다]: 문가 한 입 뺏어먹는 소소로운 즐거움이. <2018.10.31. @Sod***>

나. 고유어 + ‘-롭-’

ㄱ. [해사롭다]: 푸님 웃음은 보는 사람도 웃게 만드는 해사로운 입니다... <2018.10.27. @Apr***>

ㄴ. [존예롭다]: 기다리게 다 잊혀질만큼 존예로운 / 나의 첫 포토북 ㅍ <2018.10.26. @ong***>

ㄷ. [존귀롭다]: 존귀롭네요 <2018.10.24. @woo***>

다. 외국어 + ‘-롭-’

[모예롭다]: 프랑스산 버터는 어쩐지 모예롭다... 막 지르고 싶어짐... <2018.10.24. @fox***>

라. 기타

[색다롭다]: 같은 노래도 무대마다 색다로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2018.10.24. @doi***>

이처럼 ‘-롭-’은 ‘용기(勇氣)’, ‘패기(霸氣)’, ‘의기(意氣)’, ‘가치(價値)’, ‘신뢰(信賴)’, ‘예의(禮儀)’, ‘퇴폐(頹廢)’, ‘나태(懶怠)’, ‘분노(憤怒)’와 같은 한자어 명사나 ‘화사(華奢)’, ‘소소(小小)’와 같은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다양한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다.¹³⁾ 또한 ‘해사’와 같은 고유어 어근과 ‘존예’(‘존나(정말)

13) 한자어와 주로 결합하는 것은 ‘-롭-’ 파생어의 특징이다. 장나(2018: 59-60)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등재된 105개의 ‘-롭-’ 파생어 중에서 어근이 한자어인 경우

예쁘다’의 준말)’, ‘존귀(‘존나(정말) 귀엽다’의 준말)’ 등의 고유어 준말에도 붙을 수 있으며, ‘모에(萌え)¹⁴와 같은 외국어와도 결합하면서 활발한 쓰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색다롭다’의 경우에는 ‘색다르다(色다르다)’와의 발음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특수한 사례로 보이는데, 이는 발화 실수로 붙 수도 있겠으나 여러 화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롭-’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일례로 생각된다.

2.3. ‘-스럽-’

마지막으로 ‘-스럽-’은 ‘-스럽1-’과 ‘-스럽2-’로 구분된다.¹⁵⁾

- (13) ㄱ. ‘-스럽1-’ : [[X]_{N,R} + [스럽1]_{Sur}]_{Adj}
 감탄스럽다, 예스럽다, 팬스럽다, 엄청스럽다 등.
 ㄴ. ‘-스럽2-’ : [[X]_{N(P)} + [스럽2]_{Sur}]_{Adj(P)}
 어른스럽다, 사람스럽다, 미국스럽다, 검사스럽다 등.

이러한 구분 기준은 ‘-답1-’과 ‘-답2-’를 구분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는 80개, 고유어인 경우는 23개, 혼종어인 경우는 2개이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이러한 ‘-롭-’의 성질을 인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신조어를 파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4) 네이버 일본어사전에 따르면 ‘모에(萌え)’란 ‘어떤 인물이나 사물에 대하여 깊이 마음에 품는 모양’을 일컫는 일본어 명사이다.
 15) 이는 김정남(2005)을 참고한 것이다. 김정남(2005: 141-143)에 따르면 ‘-스럽1-’과 구분되는 ‘-스럽2-’는 19세기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이는 접사라기보다 용언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의미 면에서도 ‘-스럽1-’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스럽-’을 둘로 구분하지 않고 ‘미흡성’이나 ‘비하’의 의미, 혹은 여기에 따라 상반된 의미를 갖는 것 등으로 파악하였던 것은 모두 ‘-스럽2-’의 의미를 논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본고에서도 ‘-스럽1-’과 ‘-스럽2-’가 통사적 성격과 의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러한 구분이 ‘-답1-’, ‘-답2-’와 평행을 이룬다는 점에서 분석상의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스럽-’을 둘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답1-’과 ‘-스럽1-’, ‘-답2-’와 ‘-스럽2-’는 결합제약에서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스럽-’의 결합제약을 정리한 것이다.

(14) ‘-스럽-’의 결합제약

가. 음운적 제약

‘-스럽1-’과 ‘-스럽2-’ 모두 자음,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할 수 있다.

나. 통사적 제약

ㄱ. ‘-스럽1-’은 명사와 불완전 어근에 결합할 수 있으나 ‘-스럽2-’는 명사에만 결합할 수 있다.

ㄴ. ‘-스럽1-’은 구 단위와 결합할 수 없으나 ‘-스럽2-’는 결합할 수 있다.

ㄷ. ‘-스럽2-’의 선행 명사가 [+human]일 때 대명사로 교체할 수 없다.

다. 의미적 제약

ㄱ. ‘-스럽2-’의 선행 어기가 [+human]의 의미자질을 가질 때, [+human]으로서 자격이 결여된 어기와 주로 결합하여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ㄴ. ‘-스럽2-’는 선행 어기가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가질 때, 가치가 결여된 어기와 주로 결합하여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14)를 앞의 예문(2)와 비교해 보면 음운·통사적 측면에서 ‘-답1-’과 ‘-스럽1-’, ‘-답2-’와 ‘-스럽2-’는 대체로 유사한 제약이 있으며, 의미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답2-’는 [+human]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거나 가치가 있는 [+concrete] 어기에 붙어 주로 긍정적 의미를 드러낸다면, ‘-스럽2-’는 결합이 있는 어기에 붙어 부정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트위터 언어에서는 ‘-답2-’가 특별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어기에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럽2-’의 경우에도

선행요소에서 어떠한 결합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5) 가. 아 언니 오늘도 엄청 여신스럽습니다 <2018.10.31. @0jo***>
 나. 헐.. 이런 이벤트 너무 감사해요ㅠㅠㅠㅠㅠㅠ 천사스러우세요
 ㅠㅠㅠ <2018.10.14. @Jkk***>
 다. 말랑님 글씨체 넘 귀족스럽구 <2018.10.15. @gly***>
- (16) 가. 오늘 박 공주님 매우 모찌스럽네요 귀엽습니다 공주님.....
 <2018.10.19. @I99***>
 나. 오차츠키에 계란 노른자 하나 까넣으니까 약간 계란죽스럽고
 맛있군 <2018.10.19. @fio***>
 다. 얼마든지 오라 그러세요. / 격하게 환영합니다. ^-^ / 제가
용수철스럽거든요. ^-^ <2018.10.13. @thu***>

예문(15)는 [+human], 예문(16)은 [+concrete]의 의미자질을 갖는 어기에 ‘-스럽2’가 결합한 사례이다. 먼저 예문(15)에서 ‘-스럽2’에 선행하는 ‘여신’, ‘천사’, ‘귀족’은 긍정적인 속성을 강하게 띠는 인성명사이다. 마찬가지로 예문(16)의 ‘모찌(もち: ‘참쌀떡’의 일본말)’와 ‘계란죽’, ‘용수철’은 맥락상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나 맛이 좋음,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성정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성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스럽2’는 ‘-답2’와 마찬가지로 선행요소에 대한 의미적 제약이 약화되어 더욱 높은 생산력을 획득하였다.

또한 ‘-스럽2’는 선행 명사가 [+human]일 때 대명사로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통사적 제약이 있었으나(이태영, 1980: 94), 트위터상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7) 가. 티비 돌리다가 쇼미더머니 나와서 너살? 인가 그 사람 볼때마다
 내가 모자쓴거같은... 머리스타일 존나 나스럽네 <2018.10.06.
 @ehd***>

- ㄴ. 우리 신혼여행 정말 너무 우리 답고 우리스러워서 좋다. <2018.10.18. @MuS***>
- ㄷ. 인형이 너스럽다 <2018.10.26. @pnk***>
- ㄹ. 말을 안할뿐이지 < 너무 당신스럽다 ㅋㅋ <2018.10.31. @noi***>
- ㄹ. 너무 그녀스러운 답변 <2018.10.02. @Bub***>
- ㅂ. 이젠 굉장히 누구스러운 일인데, 언니가 이럴 줄이야. 자중자애 하시고 속히 말끔히 쾌차하십시오. <2018.10.15. @ber***>

예문(17ㄱ), (17ㄴ)은 일인칭 대명사, 예문(17ㄷ), (17ㄹ)은 이인칭 대명사, 예문(17ㄹ), (17ㅂ)은 삼인칭 대명사에 ‘-스럽2-’가 결합한 것이다. 이처럼 ‘-스럽2-’는 트위터상에서 여러 대명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스럽2-’뿐만 아니라 ‘-스럽1-’도 트위터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 현대국어에서 ‘-스럽-’은 ‘-답-’, ‘-롭-’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갖는다고 기술되어 왔는데, 트위터 언어에서도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 같다. 실제로 앞의 예문(12)에서 제시한 ‘-롭-’ 파생 신조어의 어기들은 대부분 ‘-스럽1-’과도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¹⁶⁾ ‘-스럽1-’ 파생어의 어기들이 모두 ‘-롭-’과 결합하지는 않는다. ‘-스럽1-’에만 존재하는 파생 신조어의 사례를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8) ㄱ. [답답스럽다]: 아 예판한두번해보나구 진짜 답답스러... 주문취소가 대체 폰말이야 하... <2018.10.06. @_De***>
- ㄴ. [깹깹스럽다]: A 등급이 되어도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 할텐데 B도 아니고C 라니..... 깹깹스럽네. <2018.10.29. @san***>
- ㄷ. [뽀짝스럽다¹⁷⁾]: 너무 뽀짝스럽고 귀엽고 예쁘고ππππππππ

16) 트위터상에서 관련 파생어를 검색한 결과 ‘의기스럽다’와 ‘색다스럽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는 모두 나타났다. ‘색다스럽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색다롭다’가 ‘색다르다’와의 발음상의 유사성에 기인하여 파생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의기스럽다’는 예외적인 사례로 생각된다.

17) 고유어 ‘바짝’의 방언형에서 비롯된 신조어로서 귀엽고 앙증맞은 상태나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인다. ‘귀엽다’와 결합하여 ‘귀염뽀짝’과 같은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

감정을 실감나게 표현하기도 한다. 기존에 감탄사를 어기로 취하는 ‘-스럽-’ 파생어가 ‘어힘스럽다’뿐이었음을 고려할 때(김수호, 1986: 56), 트위터상에서 ‘-스럽-’의 사용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트위터 언어에서 ‘-답-’, ‘-롭-’, ‘-스럽-’의 결합제약을 살펴보았다. 제약의 변화 양상을 종합하면 다음 <표1>과 같다.

접미사		제약	
		음운적 제약	통사적 제약
-답-	-답1-		구 단위와 결합 불가능
	-답2-		명사(구)와 결합하거나 어기 없이 사용 가능함
-롭-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결합	구 단위와 결합 불가능
-스럽-	-스럽1-		구 단위와 결합 불가능
	-스럽2-		명사(구)와 결합

<표1> ‘-답-’, ‘-롭-’, ‘-스럽-’의 결합제약(트위터 언어)

3. ‘-답-’, ‘-롭-’, ‘-스럽-’의 의미 기능

2장을 통해 트위터 언어에서 ‘-답-’, ‘-롭-’, ‘-스럽-’의 결합제약 변화는 통사적 제약과 의미적 제약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제약이 강화되기보다는 약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한층 높은 신조어 생산력을 획득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답1-’을 제외한 나머지 접미사는 모두 트위터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의미적 제약의 약화는 ‘-답-’, ‘-롭-’, ‘-스럽-’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접미사 간의 의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들의 변별성이

더욱 희미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트위터상에서는 이들 접미사가 다음과 같이 혼용되면서 의미적 차이보다는 표현적 차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 (20) 가. 새미는 사실 새미치고는 크라울리한테 잘 해줬던 거였음...
 키플링 글케 쓰루하는거 정말... 새미답고 새미로워서ㅋㅋㅋㅋ
 <2018.10.19. @Kar***>
- 나. 너무 웃겨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답다 한국스럽다
 <2018.10.11. @z2n***>
- 다. 이깎 한때 소설까지 사면서 팔때 진짜 변태로움에 탄복했다
 특히 공식일러의 변태스러움.. 아 ... <2018.10.19. @for***>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모두가 대체로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만약 ‘-답-’, ‘-롭-’, ‘-스럽-’이 특별한 의미 차이 없이 쓰일 수 있다면 이들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스럽-’이 선택되고 ‘-답-’이나 ‘-롭-’은 거의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세 접미사가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결합제약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들의 의미 기능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김정남(2005: 143-146)에서는 ‘-답1-’, ‘-롭-’, ‘-스럽1-’을 동일한 기원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여 의미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일종의 의존 용언으로 자리 잡게 된 ‘-답2-’, ‘-스럽2-’의 경우에는 의미가 구분된다고 하였다. 즉, ‘-답1-’, ‘-롭-’, ‘-스럽1-’의 공통 의미는 “여기가 지닌 성질이나 경향, 혹은 여기로 대표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음”이며, ‘-답2-’와 ‘-스럽2-’는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 더하여 ‘-답2-’는 긍정적 가치 의미를 내포하고, ‘-스럽2-’는 부정적 가치 의미를 내포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트위터 언어에서도 ‘-답-’, ‘-롭-’, ‘-스럽-’의 공통 의미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과 2.3.에서 확인하였듯이 트위터상에서는 ‘-답2-’와 ‘-스럽2-’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답2-’가 부정적 가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와 ‘-스럽2-’가 긍정적 가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모두 자연스

럽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답2-'와 '-스럽2-'의 의미 차이는 '-답2-'에 남아있는 의미적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답2-'에는 'X는 Y답다'와 같은 구문에서 'X \in Y'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적 제약이 있으나, '-스럽2-'는 그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 (21) ㄱ. 인형이 너스럽다 <2018.10.26. @pnk***>
 ㄴ. 오늘 엄청 주말스럽네 했는데 학교를 안가서 그래 <2018.10.30. @Col***>
 ㄷ. 점명이 추종자들은 점명스럽네 <2018.10.09. @scu***>

예문(21ㄱ)의 주어 '인형'은 '-스럽2-'의 선행 어기인 '너'와 구별되는 대상이다. (21ㄴ)에서도 '오늘'은 '주말'이 아니며, (21ㄷ)의 '점명이 추종자들' 또한 '점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답2-'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이 불가능하며, 오직 주어와 선행 어기가 동일한 대상일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트위터상에서 선행 어기를 취하지 않는 '-답2-'가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동일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단독으로 쓰이는 '-답2-'는 선행 어기가 주어 그 자체이거나 주어의 본질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어기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스럽2-'는 트위터상에서 다양한 어기와 결합하면서 매우 활발하게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보이지 않았다. 즉, '-답2-'는 트위터 언어에서 두 명사항의 동일성을 한층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긍정성이나 부정성과 관계없이 어떤 대상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지위를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스럽2-'는 두 명사항의 동일성보다는 근접성을 드러내는 접미사로서,¹⁸⁾ 트위터상에서는 긍정성이나

18) 김진희(1985: 144-148)에 따르면 '-스럽-'은 단지 그 선행요소s의 특징적 속성에 매우 가깝게 근접했음을 나타낸다(즉, 'X는 Y스럽다'에서 'X \cap Y').

부정성을 특별히 내포하지 않고 단순히 선행 어기의 속성에 근접하였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롭-’은 두 명사항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의미적 제약이 없으므로 ‘-스럽-’과 유사한 부류로 묶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롭-’과 ‘-스럽-’은 음운적 제약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기술되어 왔으며, 일부 문헌에서 미묘한 의미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윤동원(1987: 175-176)에서는 ‘-롭-’과 ‘-스럽-’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비교한 바 있다.

- (22) ㄱ. 평화로운 세상 / 분위기가 자유롭다
 ㄴ. 평화스러운 세상 / 분위기가 자유스럽다

예문(22ㄱ)의 ‘평화롭다/자유롭다’는 ‘평화가 있는 세상, 분위기에 자유가 있다’는 의미로서 어떤 성질이나 태도를 단정적으로 나타낸다. 반면 (22ㄴ)의 ‘평화스럽다/자유스럽다’는 ‘평화가 있어 보이는 세상, 분위기에 자유가 있는 듯하다’와 같이 다소 모호한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김창섭(1984: 151)에서 ‘-롭-’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데 어울리는 반면, ‘-스럽-’은 판단 주체의 주관적 판단임이 강하게 암시되어 객관적인 보고로 쓰이기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것과도 연결된다. 주관적인 판단은 곧 모호성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안예리(2008)에서 ‘-스럽-’이 ‘-롭-’과 달리 명제 내용을 모호하게 하고 판단을 유보시키는 헤지(hedge)의 효과를 갖는다고 한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¹⁹⁾ 즉, ‘-롭-’은

19) 안예리(2008: 78)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스럽-’이 부정적 의미의 어기에 결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부정적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작용할 때 ‘-롭-’ 대신 ‘-스럽-’이 선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트위터상에서 ‘-스럽-’은 긍정적 의미의 어기에도 자유롭게 결합된다. 그러므로 트위터 언어에서는 ‘-스럽-’이 ‘부정적인 내용을 완곡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명제 내용을 모호하게 하고 판단을 유보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스럽-’에 비해 명료하며 ‘-스럽-’은 보다 모호한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다.²⁰⁾

그런데 이러한 의미 비교는 ‘평화’, ‘자유’와 같은 추상명사에 결합하는 ‘-롭-’과 ‘-스럽1-’에 해당하는 것이다. 트위터 언어에서는 구체명사에 ‘-롭-’이 결합하는 경우도 새로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롭-’과 ‘-스럽2-’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위터에 나타나는 ‘-롭-’과 ‘-스럽2-’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구 단위와의 결합 가능성이다. ‘-스럽2-’는 명사뿐만 아니라 구 전체와도 결합할 수 있는 통사적 접사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롭-’은 구 단위와는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3) ㄱ. 철수는 {천재롭다/세기의 천재롭다}.
 ㄴ. 철수는 {천재스럽다/세기의 천재스럽다}.

‘-스럽2-’가 ‘세기의 천재’와 같은 구에도 결합 가능한 것과 달리 ‘-롭-’은 ‘천재’와 같은 단어에만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롭-’은 트위터상에서 구체명사와 결합이 가능하면서도 ‘-롭1-’과 ‘-롭2-’로 구분할 수 없다. 이처럼 구체명사와 결합하는 ‘-롭-’과 ‘-스럽2-’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어기와 접미사 간의 긴밀성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롭-’은 어기와 접미사 간의 긴밀성이 높고 선행하는 구체명사를 강하게 속성화하는 인상을 주는 반면, 일종의 의존 용언적인 성격을 띠는 ‘-스럽2-’는 어기와의 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선행 어기의 실제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천재롭다’의 의미가 ‘똑똑하다/뛰어나다’에 가깝게 해석된다면, ‘천재스럽다’는 ‘천재와 같다’에 보다 근접한 의미로 느껴지는 것이다.

20) 트위터상에서 ‘-스럽-’이 감탄사와 자주 결합하는 것도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감탄사는 맥락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뚜렷한 의미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비교적 모호한 의미를 표현하는 ‘-스럽-’과 어울리는 요소로 생각된다.

본래 ‘-롭’은 주로 추상명사에 붙어 추상적인 의미를 단정적으로 드러내는 접미사였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트위터상에서도 주로 [+abstract]의 의미 자질을 갖는 어기와 결합하여 다양한 신조어를 파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롭’ 파생 어휘가 다분히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구체명사와 ‘-롭’이 결합할 때에도 추상적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는 일종의 추상화의 기능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트위터상에 자주 보이는 인사말에서 잘 드러난다.

- (24) 가. πππππ 감삼당 뿌시로운 하루 보내세욘 <2018.10.26. @Hwa***>
 나. 앗, 초올님 덕분에 레이로운 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초올님!! 초올님께서도 제희로운 밤이 되시길 바라요~!! <2018.10.01. @Noe***>
 다. 2년간정기덕질하며 저말고 정기최애이신분 두번째로봐서 너무 반갑고 감격스러워요πππ ππ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정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2018.10.25. @Jun***>

(24가)은 ‘뿌시’라는 닉네임을 가진 상대에게 보내는 답글이다. 이때 ‘뿌시로운 하루’를 보내라는 것은 ‘상대방(뿌시)이 늘 지내왔던 것과 비슷한 성향의 하루’를 보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뜻에 가깝다. 즉, ‘뿌시롭다’라는 표현에서 선행 어기 ‘뿌시’는 [+human]으로서의 의미는 크게 약화되고 긍정성만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4나)의 ‘레이’와 ‘제희’, (24다)의 ‘정기’는 대화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캐릭터의 이름으로서, ‘레이/제희로운 밤’, ‘정기로운 하루’라는 뜻은 ‘이들 캐릭터가 보내는 시간과 유사한 시간’을 뜻하기보다는 단순히 ‘좋은 밤, 좋은 하루’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이들은 모두 인물의 구체적인 속성에서 긍정성만 남는 방식으로 추상화가 된 것이다.

이처럼 ‘-롭’은 선행 어기를 강하게 추상화하여 완전히 속성화하는 기능을 한다. ‘-스럽’도 트위터상에서 이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롭’

에 비해 어기의 실체성이 남아있는 느낌을 준다.

이상으로 트위터 언어에서 나타나는 '-답-', '-롭-', '-스럽-'의 주요 의미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기능		공통 의미	변별적 기능
접미사			
-답-	-답1-	어기가 지닌 성질이나 경향, 혹은 어기로 대표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음	어기와 주어와의 동일성을 강하게 나타냄 (구체명사 뒤에서) 어기를 추상화, 속성화 함
	-답2-		
-롭-			
-스럽-	-스럽1-		어기가 지닌 성질이나 경향에 근접하였음을 나타냄
	-스럽2-		

〈표2〉 '-답-', '-롭-', '-스럽-'의 의미 기능(트위터 언어)

4. 결론

지금까지 트위터 언어에 나타나는 '-답-', '-롭-', '-스럽-'의 결합제약과 의미 기능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은 비슷한 의미를 취하면서도 서로 다른 결합제약으로 구분되어 왔으나, 트위터상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약화되면서 기존에는 생산성을 잃었다고 인식되던 접미사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합제약의 약화는 통사·의미적 차원에서 일어났으며, 특히 의미적 제약의 약화는 '-답-', '-롭-', '-스럽-'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의미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만 '-답-'은 선행 어기와 주어와의 동일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롭-'은 구체적인 어기를 추상화·속성화 하는 기능을 하며, '-스럽-'은 어기의 실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성질에

근접하였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답-’, ‘-롭-’, ‘-스럽-’의 새로운 사용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들 접미사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다양한 매체 속에서 언어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다양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접미사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트위터를 대상으로 지엽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이 연구를 시작으로 추후로는 SNS를 비롯한 여러 채널의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어학적 연구에서 SNS와 인터넷 통신언어 등에 나타나는 유행어, 임시어 등을 다소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언어의 모습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한국어의 본질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사라지는 언어의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가 그러한 작업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더 나아가서는 ‘-답-’, ‘-롭-’, ‘-스럽-’의 총체적인 기술을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답-’, ‘-롭-’, ‘-스럽-’, SNS, 트위터, 결합제약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권숙렬(1984), 「‘답, 룬, 슥’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39권 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2~29면.
- 김경미(2016),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유형에 따른 SNS특성이 고객 자산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10), 「신조어의 생성과 보급에 대한 사회·심리 언어학적 분석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호(1986), 「접미사 “-답다, -롭다, -스럽다”의 어휘론적 기능연구」, 『문화와융합』 7권 1호, 문학과언어연구회, 51~74면.
- 김정남(2005), 「‘-답다’, ‘-롭다’, ‘-스럽다’의 분포와 의미」, 『한국어어미학』 18권, 한국어어미학회, 125~148면.
- 김진희(1985), 「형용사파생접미사 : “-답다” “-스럽다”의 의미론적 고찰」, 『홍익어문』 4권, 홍익대학교 홍익어문연구회, 133~150면.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진단학보』 58호, 진단학회, 145~161면.
- 민여은(2009), 「접미사 ‘-답-’, ‘-롭-’, ‘-스럽-’에 대한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84),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권, 국어학회, 95~118면.
- 박수영·하용호·김용혁(2010), 「트위터 정보 검색 분야의 최근 연구들」,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7권 2호, 한국정보과학회, 25~29면.
- 변민주(1995), 「二十世紀初 國語의 派生語 研究 : 新小説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1978), 「파생어 형성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신순자(1988), 「국어 접미사 “스럽다”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안예리(2008), 「형용사 파생 접미사의 어기 공유 현상」, 『형태론』 10권 1호, 형태론학회, 63~83면.
- 양정호(2004), 「형태소 개념과 국어사 기술」, 『한국문화』 34권,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20면.
- 우 호(1980), 「형용사 파생접미사 “-답다” “-스럽다”의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2003), 「[국어학의 이해] 형용사 II」, 『새국어생활』 13권 3호, 국립국어원, 255~275면.
- 윤동원(1987), 「형용사 파생접미사 {-스럽-}, {-롭-}, {-답-}의 연구」, 『서울대학교논문집』 8권, 서울대학교, 143~183면.
- 이래호(2009), 「2008년도 신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한국중원언어학회 2009 봄 학술발표회』, 한국중원언어학회, 51~63면.
- 이수연(2005), 「파생접미사 “-질”의 생산성과 의미-인터넷상의 신조어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0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87~111면.
- 이태영(1980), 「형용사 파생 접미사(-답-, -롭-, -스럽-의 연구)」, 『전북인문』 1권, 전북대학교 문과대학 학도호국단, 80~94면.
- 장 나(2018), 『현대한국어 한자어 어근 파생형용사 연구』, 태학사.
- 장영희(1986), 「현대국어 접미사 ‘-답-’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수(1989), 「접미사 ‘-답-’, ‘-스럽-’, ‘-롭-’의 상관성과 대립성」, 『덕성어문학』 6권 1호, 덕성여대 국어국문학회, 51~76면.
- 정연주(2007), 「형용사 형성 접미사의 통시적 변화-‘-되-’, ‘-롭-’, ‘-스럽-’, ‘-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호철(1994), 「현대 국어 가의소의 의미 분석 (1)-‘-답다, -되다, -롭다, -스럽다’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권, 한국어학회, 415~444면.
- 최화니(2012), 「“막이래”의 담화 기능 연구-트위터(Twitter) 언어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2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41~264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https://opendic.korean.go.kr/main>).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네이버 일본어사전(<https://ja.dict.naver.com/>).

장순영(2019), 『[빅데이터] 국내 정보 업로드, 월요일 가장 많고 토요일 최소... 정보 건수 '트위터' 최다』, 『빅데이터뉴스』(http://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1909181128063155d0a8833aad_23).

정지은(2017), 『먹방과 함께 떠오른 음식 관련 신조어』, 『브라보마이라이프』(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6909).

【Abstract】

**The Combination constraint and Semantic function of
‘-dab-’, ‘-lob-’, ‘-seuleob-’
- Focusing on the Twitter language -**

Choi, Hwa-n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ombination constraint and semantic function of the adjective derivational suffixes, ‘-dab-’, ‘-lob-’, ‘-seuleob-’ based on Twitter language. To this end, it collected the derivatives of ‘-dab-’, ‘-lob-’, ‘-seuleob-’ and analyzed the aspects of use in Tweets written from 1 to 31 Oct. 2018.

These suffixes have taken similar meanings but have been divided into different phonological, syntactic and semantic combination constraints. On Twitter, however, the suffix perceived as losing productivity in the past was also being actively used since the constraints were greatly weakened. The weakening of the combination constraint occurred in the syntactic and semantic levels, and, in particular, as the weakening of the semantic constraint was common all of ‘-dab-’, ‘-lob-’, ‘-seuleob-’, it showed that their boundaries of meaning were being broken down. Only it showed the differences in the way that ‘-dab-’ strongly reveals the equality between preceding base and subject, ‘-lob-’ functions to abstract the concrete base, and ‘-seuleob-’ shows to come close to nature of base while maintaining the substance of base somewhat.

【Key words】 : ‘-dab-’, ‘-lob-’, ‘-seuleob-’, SNS, Twitter, Combination constraint

최화니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
국문학과

전자우편: persistently@naver.com

이 논문은 2020년 5월 12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6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